다수힘으로 만들어야 할 진보학원

학생운동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획시리즈(4)—학생회의 변화

왜 변화를 말하는가

우리는 이제껏 한뱀씩 현실의 변화를 감지하고, 한발짝씩 활동을 바꾸어왔다. 대중운동이 침체될 때마다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또는 색다른 유행으로 '현실'을 이겨왔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2년 전부터 바람을 일으키며 진행되는 변화의 모색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전환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 큰 흐름속에서 학생운동내 활동가들이 보다 집중해야 할 문제는 무말할 나위 없이 '학원, 학생회, 학생운동'이다. 특히 학생회에 착목하는 것은 자치조직의 일반적 중요성외에도 이제까지 학원의 여론을 주도해왔던 힘이자 학생운동을 표현하는 조직으로 이해해왔다는 데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같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뀌어야 할 학생회의 위상과 활동'이다.

이 결론을 위한 접근방식은 현실에 대한 전면적 분석, 즉 현재 대학의 위상과 대학생의 의식 등 현실의 물적 조건을 확인하고 학생회운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가르고, 또 학생회운동의 법회상을 파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많은 분량을 한정된 지면에 다 다룰 수 없기에 과감히 '설득의 근거'를 생략하기로 한다. 간단하게 대학의 위상과 학생회운동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거친 결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정치투쟁으로 일구어온 학생회운동의 역사

학생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누구나 한마디로 '학생대중을 위한, 학생대중에 의한, 학생대중의 조직'이라 입을 모은다. 보통의 자치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이해에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입금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거나 감화되는 수준이 상례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생회의 역사는 이런 순리에 그대로 조응하지 않았다. 극심한 반공이데올로기와 물리력에 근거한 폭압적 통치구조가 상당기간 사회를 규정했던 과거는 대학생의 자치조직조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대학생의 일반적 요구와 권리는 사회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조응하고 있었다.

학생회는 세번 폐지되었고 부활되었다. 1949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공통일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1960년 4·19때 명을 거치면서 직접선거 중심의 학생회로 바뀌었고, 송박리는 유신독재는 1975년 긴급조치 9호로 학생회 활동을 정지시키고 급기야 폐지시켰다. 80년, 봄에 와서야 학생회의 재건이 이루어졌으나 곧 5·17 비상계엄령이 내려짐으로써 학원이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고 학도호국단이 설치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5공호국치하에서 학생운동은 비합법운동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 힘이 84년 학원자율화조치를 기해 학생회 건설투쟁을 벌이게 된다.

1985년에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합법성을 정취한 학생회가 건설되었고 연대기구로 '전국학생총연합'과 투쟁기구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가 만들어졌다. 학생회는 중심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여오다가 87년 6월 투쟁을 계기로 대중운동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다. 그리고 이후 조직적으로나 활동내용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한다. 이는 서대협에서 시작되어 결성한 전대협, 학교에서 보면 단대, 과학생회의 건설과 학회연합, 소비자협동조합, 학원자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펼치는 각급 특별기구의 결성 등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건설, 강화되어온 학생회의 역사를 확인하였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학생회와 학생운동의 역사와 발전상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회 건설기에는 주로 비공개 비합법적 활동을 하던 학생운동진영이 학생회를 정치적 주장을 펼 거 없은 범위로 펼칠 수 있는 합법적 장치, 수단 정도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병폐는 아직까지도 남아 학생회간부를 학생회의 정치적 견해를 결정하는 표수 정도로 이해하고 학생회의 명의를 주장의 신뢰도를 보장해주는 명할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현재 학생회의 대중적 성장과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회 역사의 본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의식을 지닌 학생들의 진보적인 민주화투쟁의 열화로 학생회가 만들어졌고 이 형태로 상당기간 학생회는 사회적 실천에 보다 큰 비중으로 두면서 정치투쟁을 수행해 왔으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활동은 학원내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학생운동을 표현하는 다른 말인 것처럼 통용되는 학생회는 어느 운동단체보다도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었으며 이는 한 측면으로는 한국사회 학생부문에 있어 대중조직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과거를 지양해야 살아남는 현재의 학생회

학생회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하락, 정치적 무관심과 개인주의의 팽배 등으로 현상에서 드러나는 현재 학원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몇년전에 이미 고개를 들었다. 초기에는 평면적인 비교를 하는 수준에서 이것을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에 대한 개선으로 치유하려 했었다.

예를 들어 대자보를 읽지 않는 상황에는 보다 큰 글씨, 새색의 정성으로 대자보를 붙들이는 정성이 해결책이었고, 집회에 오지 않는 사태에는 흥겨운 문화행사와 오락성이 짙은 집단적 유희를 접가하는 기발함이 치유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도덕적 신망을 받으며 대학내 여론을 주도하는 학생운동권,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는 학생수로 확인할 수 있었던 집회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아니, 일년에 몇번 있는 큰 행사는 성사시킬 수 있다 해도 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확장한 폭만큼 품부한 활동내용과 사람이 일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현실은 학생들의 속내와 학생회의 활동가들 사이에 무언가 호응하지 않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학생회 활동이 학생회의 심질적인 주인인 학생들의 요구와 지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70년대, 80년대의 정치상황이 규정하던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대학생의 정치의식이 변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당시에는 그 현실에 맞는 민주화투쟁, 민중생존권 보장투쟁을 대변하는 일이 대학생의 임무로 설득력을 가졌고 방식 또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점거농성이건 가두시위건 불가피함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이런 압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 학생회는 중심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여오다가 87년 6월 투쟁을 계기로 대중운동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다.

정치투쟁 우위는 학생들의 요구·지향 담보 못해
여러 정치적 견해안에서 이끌어내야 할 다수의 진보성

대학의 진보를 책임지는 학생회를 건설해야

대학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장이다. 대학교육은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위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입시교육이 취업교육으로 바뀌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와 개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 바탕위에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대학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학원안정화 대책이니 사립학교법이니 하면서 문교부의 통제가 대학의 자율적 동조에 힘입어 학생회는 무리없이 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87년 이후 사회적 상황이 변한 것은 물론이고, 기층 민중들의 의식과 운동이 성장한 사실은 학생들의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학생대중들이 더욱 잘 파악하고 있다. 또 대학이 더이상 사회적으로 지식인을 양산해내는 장이기보다 기능인을 배출해내는 직업훈련소로 전락해가고 대학생 역시 취직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대학에 다닌다는 점, 또 정치적 다원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그 합의구조 역시 합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사회현실에서 대학생은 더이상 민주화라는 추상적 대의, 자본주의라는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저항에 쉽게 동의하거나 조직되지 않는다.

엄연한 이 현실앞에서 열혈청년의 기상에 호소하고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말한들 실생활한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동참을 호소하고 과학적 사상을 취해야 됨을 선언한들 피하고 싶은 부담일 뿐이다. 결론은 당순분명한 이 내용을 좀 더 세련되게 광고문안까지 도용해가며 펼쳐놓아도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것을 똑똑한 요즘 학생들은 다 간파하고 만다.

학생회의 활동이 '정세속에서 대학생의 역할'식으로 매겨졌던 시기는 지났다. 자주적 학생회나 민중민주적 학생회니 하는 불필요한 외피 씌우기 논쟁 또한 종결되어야 한다. 특히 실상활동은 구미에 맞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가 때되면 소리높여 투쟁을 외치는 기만적 방식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학생회의 역할은 보다 총체적인 대학의 위상과 대학생의 지향을 파악하는 것 속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보부터 현재의 활동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에 대한 밀착과 과거를 '배워야 할 역사'로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

학생회를 빌미로 개강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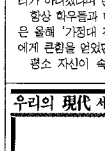
진정으로 학생총회답게 하는 것, 학회를 매개로 활동가나 정치조직의 성원 하나 늘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 그 자체의 내용적 성장과 전망을 이루게 하는 것 등이 위와 같은 취지의 활동이다. 인문대나 공대나 차이없이 진행하는 단대대동제, 문예모임이나 학술동아리나 다르지 않는 학습 커리큘럼은 이제 학생들로부터 거부되고 있다.

일본보기에 이전의 학생회보다 활발하고 논술하고 낳은 수위의 활동인듯 비춰지는 이것이 사실 몇 배나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활동에 몸입한 순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의 근원은 현실에 대한 무지와 굳어진 시고방식, 활동양식에 있음도 쉽게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성, 지적적 관념성과 치열하게 싸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2천년대를 바라보는 학생회운동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현재의 어려움은 다수의 힘으로 만드는 진보적 대학이라는 결과, 그리고 사회진보라는 미래가 보상해 줄 것이다.

양 난 주
〈진보학생연합 추진위 사무국장〉

"학생회는 학우들의 것입니다"



인터뷰 가정대 학생회장 양을 신귀희(식영·4) 만나

"학생회란 학우들의 모든 삶, 투쟁, 학습 등을 함께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라고 현 학생회 위상을 말하는 가정대 학생회장 신귀희(식영·4)양.

이전 정치투쟁에만 국한되었던 학생회는 변화해야 하나, 이것이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라 힘겹다며 웃는 신양은 그러나 현재 학생회에 대해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냐며 반문하기도.

항상 학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신양은 올해 '가정대 건물투쟁'을 하면서 학우들에게 큰힘을 얻었단다.

평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 자그마한 것부터 사랑하는 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했었으나 이번 기회에 학우들속에서 호흡한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한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야 학우들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신양은 단점까지 이야기하는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갈때 학우들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솔직한 것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신양은 학생회의 변화에 대해 이제는 당위성만으로 운동하던 시대는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모든 이들이 생생한 삶 속에서 먼저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일진자에서 끊어진 철도를 보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느끼다면가, 철거민속에서 민중의 삶을 느낀다면지 해야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는군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가정관리학과에서 처음으로 '취업설명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양은 느낀것이 많았단다. 미래전망에 대해 고민을 3·4학년이 주로 했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1학년때부터 전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니 학우들의 고민은 지속적인데 비해 학생회는 계기속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 관행적 학생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학생회의 주도적 사람들, 즉 간부들이 변해야 하는데 학우들 속에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貞〉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대졸신입사원모집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경영전략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온 現代 —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現代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도전해 보십시오.

1.모집부문·인원 및 자격 총 2,500명

구 분	모 집 부 문	인 원	응 시 자 격
이 공 계	기계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건축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산업공학·전산학·수학·물리학	1,650명	●정규 4년제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유련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로 93년 2월 학사(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기취득자 ●1964년 1월 1일(석사 :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미필자도 지원가능)
인 문 사 회 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85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전형방법
가. 1차 : 필기시험
●이 공 계 : 영어·전공
●인문·사회계 : 영어·전공(경영학·경제학·무역학·법학·행정학·영문학 중 택일)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1992년 11월 1일(일) 오전 9시
나. 장 소 : ●서울지역 접수자 : 1) 이 공 계 : 건국대학교(성동구 모진동)
2) 인문·사회계 : 경희대학교(동대문구 회기동)
●울산지역 접수자 : 울산대학교(경남 울산시 무거동)

4.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 2통
나.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1통

5.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992년 10월 5일(월)~10월 15일(목)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나. 지원서 교부처

지 역	교 부 처		전 화
서 울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미원옆)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2) 746-3231~4
울 산	(682-792)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 1번 대 중 공 업(주)	인력관리부	0522) 30-2301~4
부 산	부산진할시 중구 중앙동 4가 80-1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부산중부영업소 051) 466-4400~14
대 구	대구직할시 서구 원대동 2가 69-2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북대구영업소 053) 353-4200~11
광 주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2가 415-12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광주영업소 062) 364-2111~5
대 전	대전직할시 동구 성남 2동 503-2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대전영업소 042) 624-6301~7
전 주	전북 전주시 경원동 3가 73-1	현대자동차써비스(주)	전주영업소 0652) 86-5111~6
청 주	충북 청주시 영동 87-3	현대자동차써비스(주)	청주영업소 0431) 52-3911~4
춘 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 1동 685	현대자동차써비스(주)	춘천영업소 0361) 52-4706~8
강 릉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59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강릉영업소 0391) 43-3390~3

다. 지원서 접수처 : ●서울 - 현대인력관리위원회(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울산 - 현대중공업 인력관리부

6.기 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나. 우편접수자는 수험표, 반송용 봉투(우표부착·본인주소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할 것.
다.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92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라.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마. 전천한 체력 활동과 다양한 스포츠·취미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우대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2年 10月

現代 人力管理委員會